

---

## I . 경영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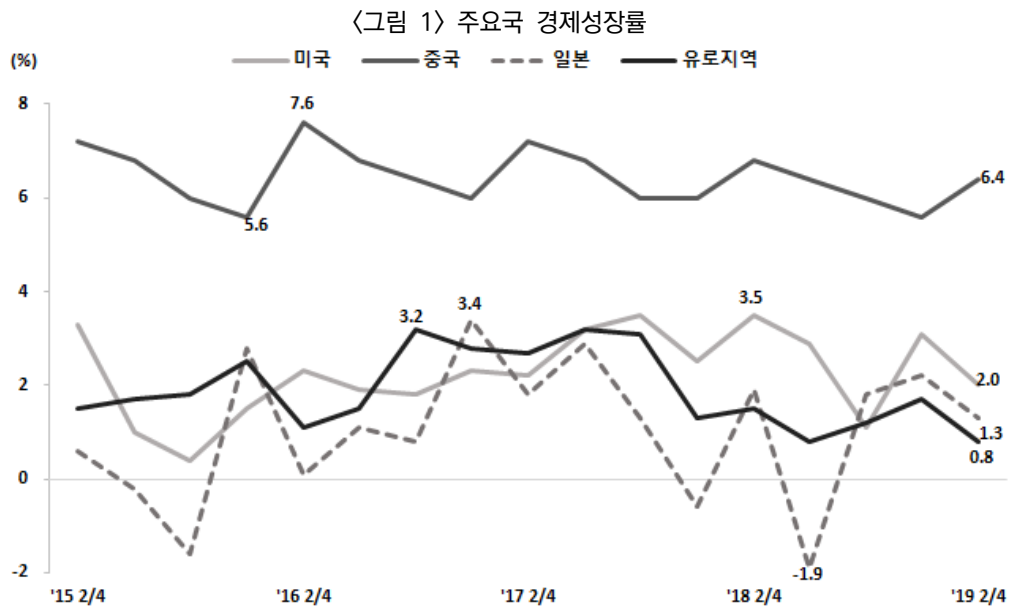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의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함
  - 주요 국제기관들은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2.9~3.0%로 제시함
-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 증가율이 소폭 반등하였으나, 상승세로 전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0%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여전히 하락세임
- 10월 16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및 정책대출(안심전환대출)로 인한 MBS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임
  -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됨
-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1,2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전환함
  - 원/엔 환율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본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며 하락세로 전환함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하여 2019년 2/4분기 31.7%를 기록함

## 1. 경제

### 가. 세계경제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하고 소폭 하락함

- 2019년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6.4%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1%p, 0.9%p, 0.9%p 하락한 2.0%, 1.3%, 0.8%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9); 중국 국가통계국(2019. 7); 일본 내각부(2019. 9); Eurostat(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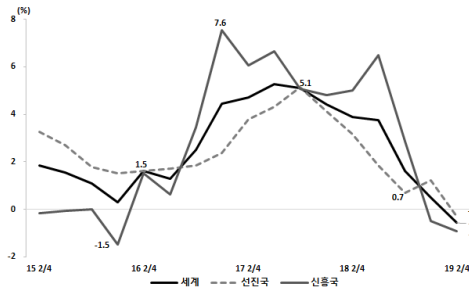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함

- 2019년 2/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 부과 및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sup>1)</sup> 전분기보다 각각 1.5%p, 0.4%p 하락한 -0.3%,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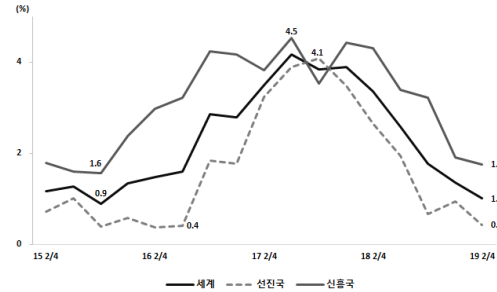
1)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9년 2/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유로지역의 새로운 배출규제<sup>2)</sup> 시행으로 자동차 생산이 대폭 감소하여<sup>3)</sup> 전분기보다 각각 0.5%p, 0.1%p 하락한 0.4%, 1.8%를 기록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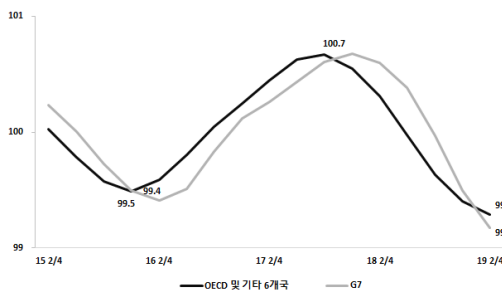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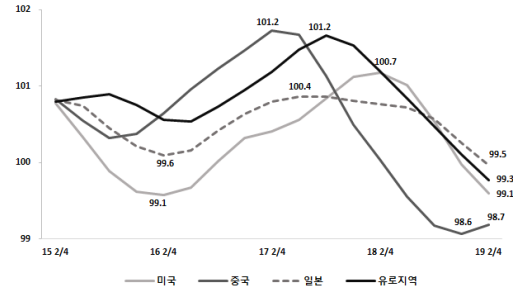
- 세계 경기선행지수<sup>4)</sup>는 2017년 4/4분기에 최근 4년 내 최고치인 100.7을 기록한 이래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2019년 2/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9.2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은 각각 0.4, 0.3, 0.3 하락한 99.1, 99.5, 99.3을 기록함
- 한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1 상승한 98.7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2)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는 2018년 9월 유로지역 전역에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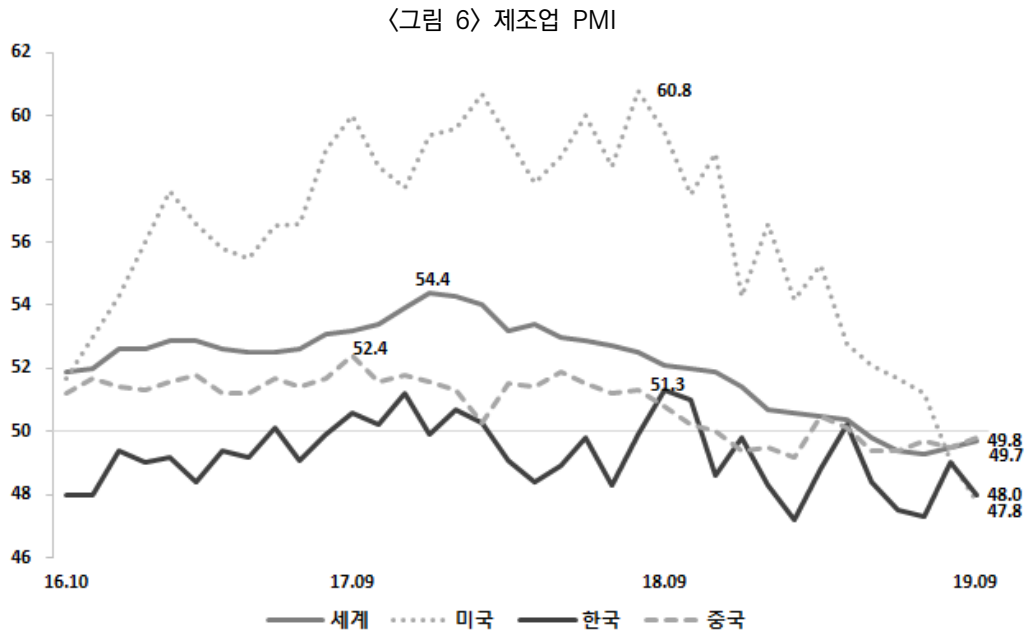
3)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4)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sup>5)</sup>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49.3)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함

○ 2019년 9월 글로벌 PMI는 49.8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 2019년 9월 한국과 미국은 PMI가 하락한 데 비해 중국은 PMI가 소폭 상승함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OECD는 최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0.3%p 하향 조정하여 2.9%로 발표함<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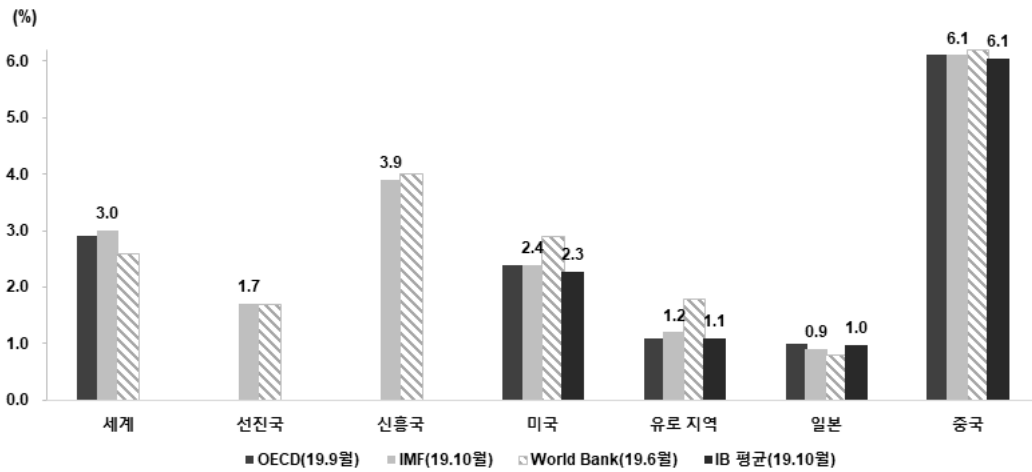
○ IMF는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여 3.0%로 제시함<sup>7)</sup>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경기선행지수와 상관성이 매우 높음

6) OECD(2019. 9),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7)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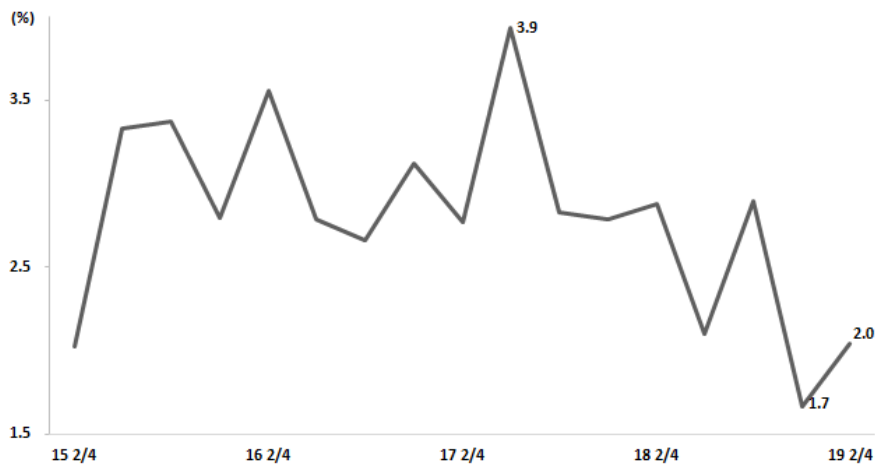


자료: IMF, OECD, World Bank, 4개 IB 평균임

## 나. 국내경제

■ 2019년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0%를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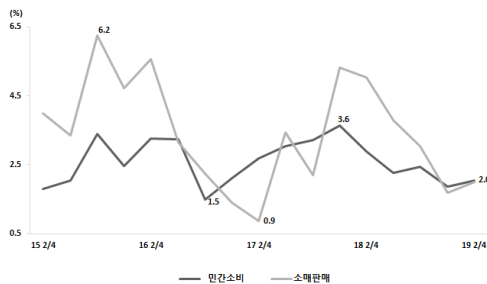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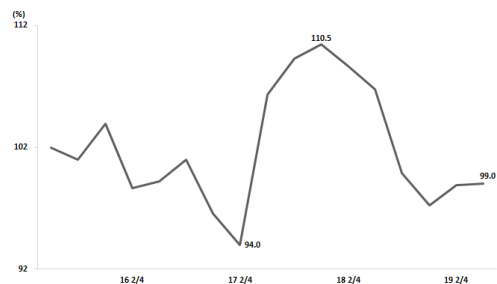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모두 2.0%를 기록함
- 2019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sup>8)</sup> 전분기보다 0.1 상승한 99.0을 기록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는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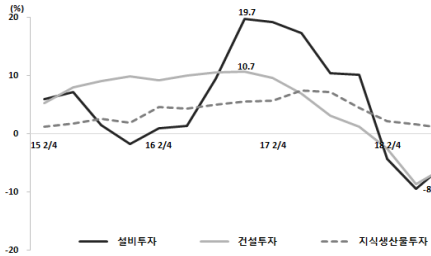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2.7%를 기록하였고, 건설투자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3.7%p, 10.4%p 상승하여 각각 -3.5%, -7.0%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4월 및 6월 중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sup>9)</sup> 상승함
- 2019년 2/4분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증가율은 각각 전분기보다 3.3%p, 1.9%p 상승하여 0.5%, -2.3%를 기록함
  - 건설수주 증가율은 4월 중 주택·사무실 등 건축부문과 기계설치 및 토목 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sup>10)</sup> 상승함

8) 국회예산정책처(2019. 5), 『NABO 경제동향&이슈』

9) 통계청 보도자료(2019. 5),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9. 7),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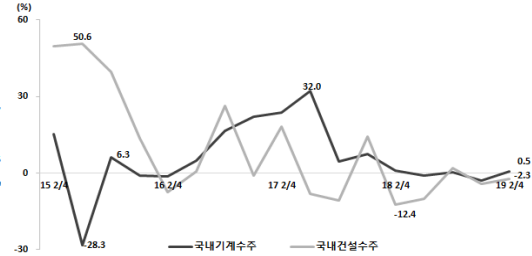
10) 통계청 보도자료(2019. 5),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sup>1)</sup>, 건설수주<sup>2)</su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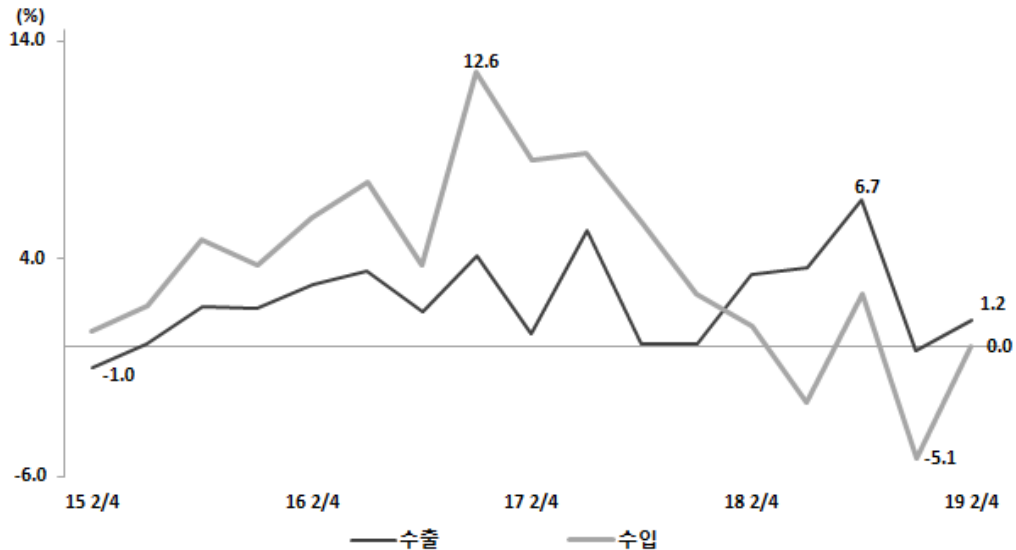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  
자료: 통계청

■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4분기 반등함

- 미·중 무역분쟁 확대 및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른 전분기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9년 2/4분기 수출 증가율은 1.4%p, 수입 증가율은 5.1%p 상승하여 각각 1.2%, 0.0%를 기록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둔화 기초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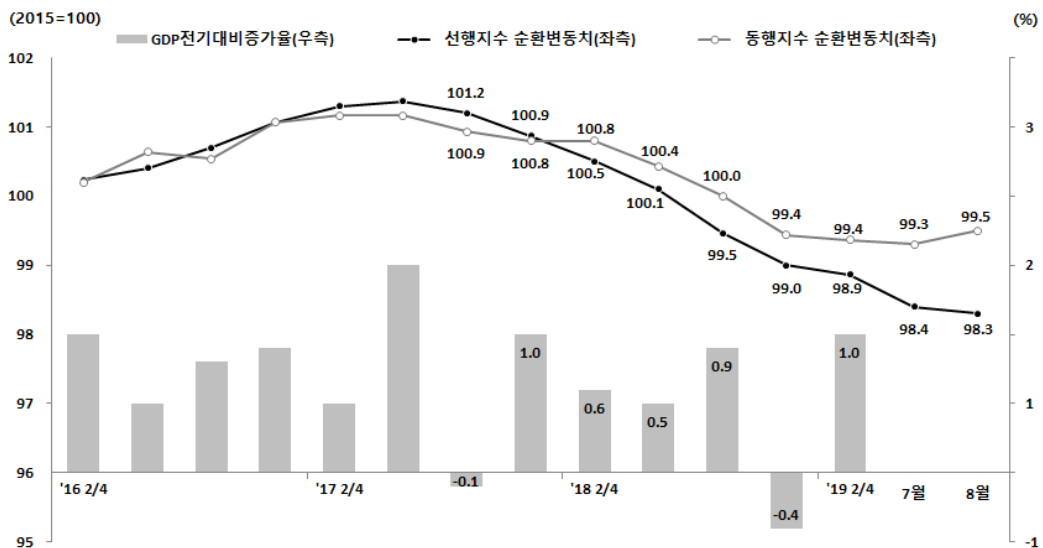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sup>11)</sup>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금리차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8.9을 기록함

- 2019년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등이 감소하여<sup>12)</sup> 전월 대비 0.1 하락함

○ 2019년 2/4분기 경기 동행지수<sup>13)</sup>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같은 99.4를 기록함

- 단, 2019년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 지수 및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sup>14)</sup> 전월 대비 0.2 상승함

〈그림 14〉 GDP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19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1)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가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2)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13)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4)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 2. 금융

###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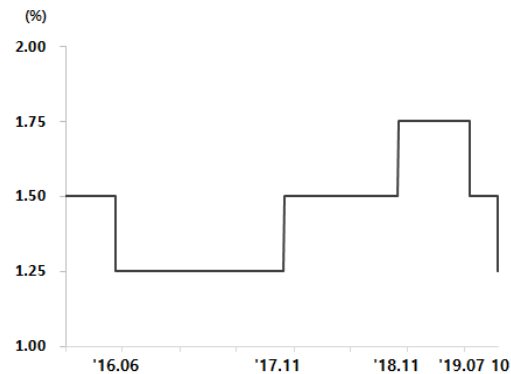
■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0월 16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인하됨

○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sup>15)</sup>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

○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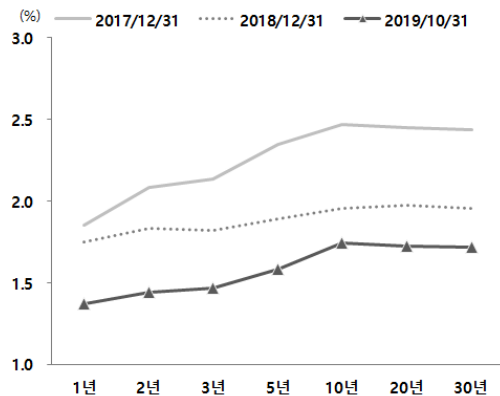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전년 동월 대비)로 역대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함

〈그림 15〉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6〉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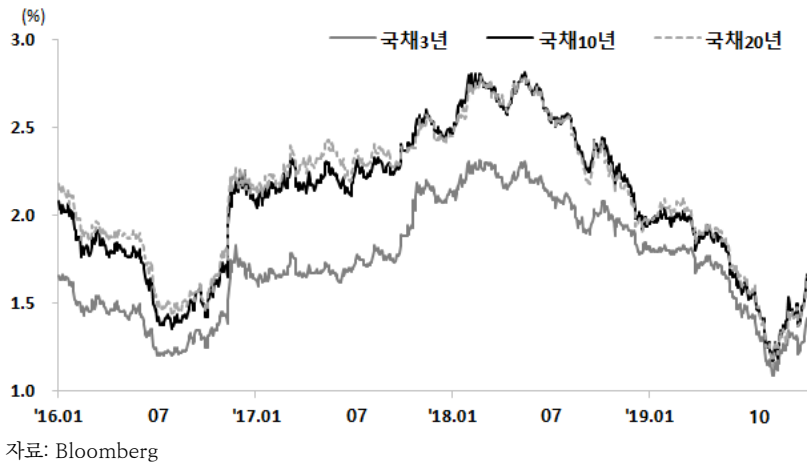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및 정책대출(안심전환대출)로 인한 MBS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임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0. 16),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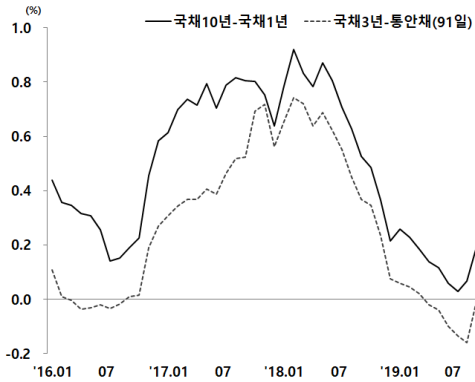
〈그림 17〉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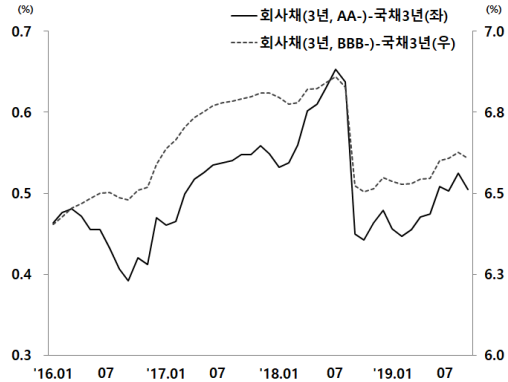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됨

- 기준금리 인하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추세임
- 신용스프레드는 2019년 들어 완만하게 확대되다가 10월 들어 소폭 축소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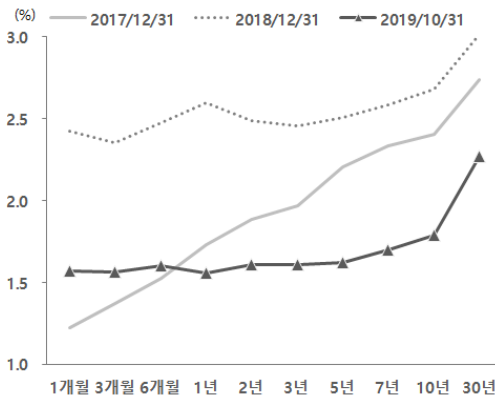


■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sup>16)</sup>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축소되고 있음

16) '19년 7월 1.75~2.00% → 10월 1.5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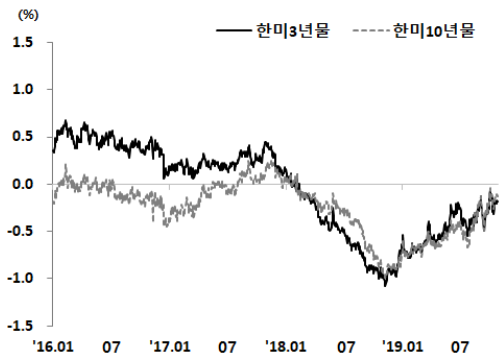
-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2%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여 10월 30일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0.25%p)를 단행함<sup>17)</sup>
  - '1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9월 ISM 제조업 지수(47.8)는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sup>18)</sup>
-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장단기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10월 금리 인하가 사실화되며 3년 이하 단기물 금리는 1.5%대, 10년물 금리는 1.7%대로 하락함

〈그림 20〉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1〉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19년 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

- 2019년 4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62%,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31%, 1.29%로, 상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 미국 국채(10년)금리 |      | 국내 국채(10년)금리 |      | 국내 국채(3년)금리 |      |
|--------------|------|--------------|------|-------------|------|
| 상반기          | 4Q   | 상반기          | 4Q   | 상반기         | 4Q   |
| 2.49         | 1.62 | 1.88         | 1.31 | 1.72        | 1.29 |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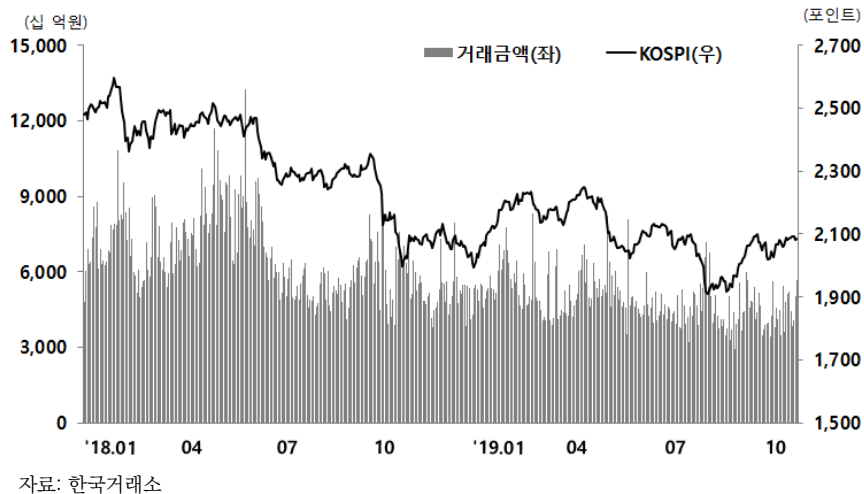
17) 연방준비제도(2019. 10. 30),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18) 국제금융센터(2019. 10. 31), 『미 '19년 3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Issue Analysis

### 〈주가〉

- 3/4분기 코스피(KOSPI)는 1,910~2,147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지속 등으로 2,000선을 하회한 후 다시 회복함
-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19년 8월 2,000선을 하회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 9월 홍콩의 송환법 철회,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임

〈그림 22〉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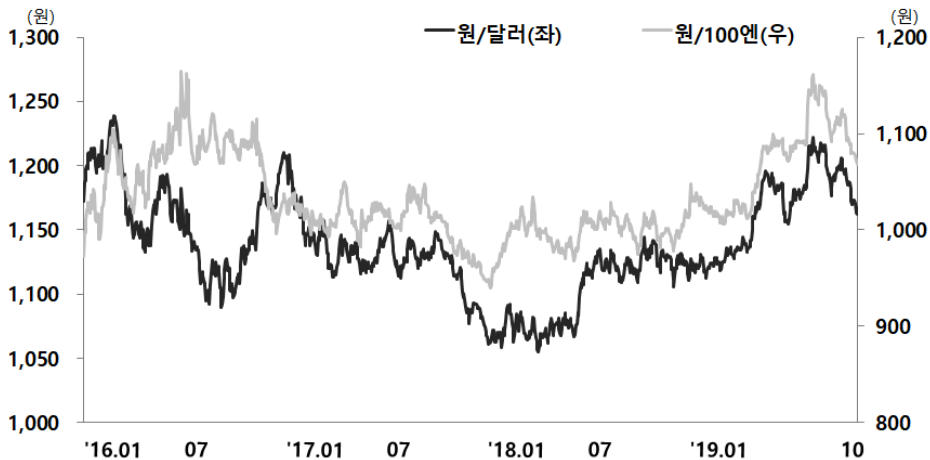
###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1,2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전환함
- 9월 초까지 1,200원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미·중 고위급 회담(10. 10)으로 무역 협상 진전이 기대되고,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이후 현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1,190원대로 하락함

■ 원/엔 환율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본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며 하락세로 전환함

- 미·중 무역분쟁, 북한과 이란의 핵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엔 환율은 8월 평균 1,141원, 9월 평균 1,113원을 기록함
- 10월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브렉시트 불안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약세를 가중함
  -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7.3% 감소하여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함<sup>19)</sup>

〈그림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9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미국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19) 일본 재무성 보도자료(2019. 10. 21), "Trade Statistics(September 2019 & Fiscal Year April-September 2019)"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 구분                 | 원/달러     |       | 엔/달러   |     | 달러/유로 |      |
|--------------------|----------|-------|--------|-----|-------|------|
|                    | 상반기      | 4Q    | 상반기    | 4Q  | 상반기   | 4Q   |
| Standard Chartered | 1,145.84 | 1,210 | 110.03 | 105 | 1.13  | 1.07 |
| JP Morgan Chase    |          | 1,190 |        | 107 |       | 1.10 |
| Barclays           |          | 1,220 |        | 107 |       | 1.09 |
| Citi group         |          | 1,220 |        | 106 |       | 1.10 |
| Morgan Stanley     |          | 1,230 |        | 101 |       | 1.15 |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3. 가계동향

■ 2018년 가계부문<sup>20)</sup>의 자금잉여<sup>21)</sup>는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가계자금잉여가 증가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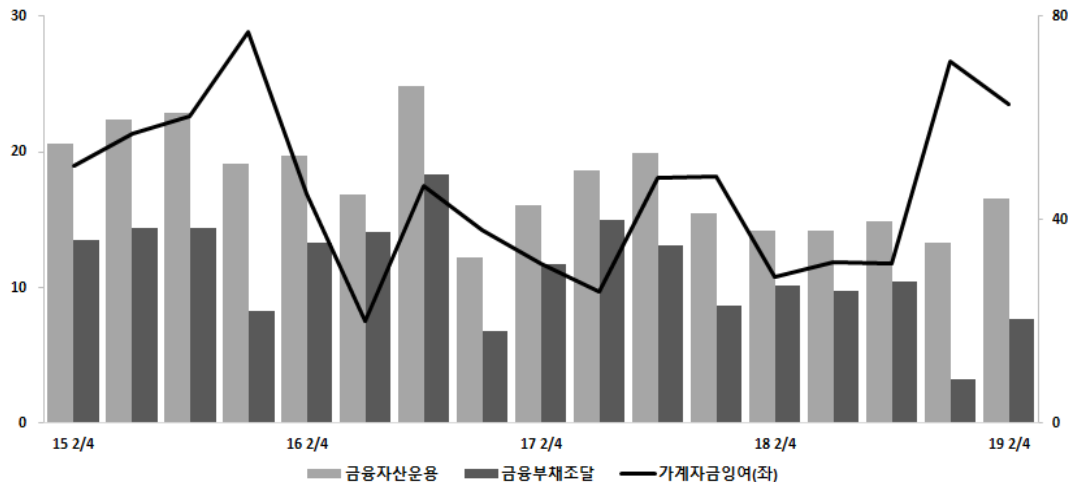
○ 2016년부터 시작된 가계부문의 자금잉여 감소세는 주택매수 확대에 기인함

- 자가보유율<sup>22)</sup>: 58.0%( '14)→59.9%( '16)→61.1%( '18)

○ 2019년 상반기 가계자금잉여 증가는 주택매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4〉 가계자금잉여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 거래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하여 2019년 2/4분기 31.7%를 기록함

20)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1)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22) 국토교통부(2019. 3),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3〉 가계 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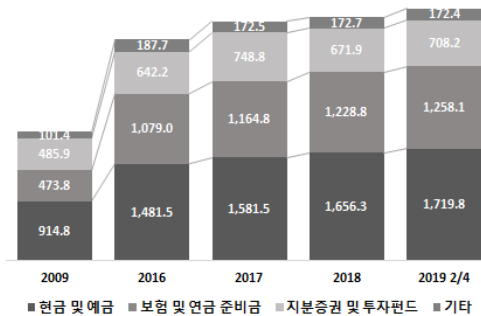
| 구분       | 현금 및<br>예금 | 보험 및 연금      | 채권    | 거주자<br>발행주식<br>및 지분 | 비거주자<br>발행주식 | 투자펀드  | 기타   | 합계    |
|----------|------------|--------------|-------|---------------------|--------------|-------|------|-------|
| 2009     | 86.4       | 53.8 (37.1%) | 16.1  | 9.7                 | -2.2         | -18.7 | -0.1 | 145.0 |
| 2010     | 95.3       | 65.9 (44.7%) | 11.1  | 5.9                 | -0.2         | -30.0 | -0.6 | 147.4 |
| 2011     | 70.9       | 72.3 (45.6%) | 11.1  | 7.9                 | -0.3         | -5.9  | 2.5  | 158.5 |
| 2012     | 36.9       | 99.0 (79.7%) | 10.5  | -6.1                | -0.4         | -14.2 | -1.5 | 124.2 |
| 2013     | 60.6       | 91.2 (60.5%) | 6.1   | 0.7                 | -0.3         | -7.3  | -0.2 | 150.7 |
| 2014     | 76.0       | 90.5 (53.2%) | 4.0   | -0.8                | 0.8          | -3.5  | 3.1  | 170.0 |
| 2015     | 107.9      | 89.8 (40.3%) | 4.7   | 5.3                 | 1.7          | 9.5   | 4.1  | 223.0 |
| 2016     | 118.3      | 87.7 (41.0%) | -0.9  | 9.9                 | 0.1          | -2.6  | 1.2  | 213.7 |
| 2017     | 101.2      | 83.3 (47.7%) | -11.8 | 0.0                 | 1.1          | -3.9  | 4.7  | 174.6 |
| 2018     | 74.3       | 61.4 (40.3%) | 0.1   | 17.0                | 1.8          | 0.0   | -2.1 | 152.4 |
| 2019 1/4 | 38.4       | 13.9 (39.3%) | -8.8  | -4.9                | 0.3          | 1.8   | -5.3 | 35.4  |
| 2019 2/4 | 25.7       | 14.0 (31.7%) | -1.7  | -1.2                | 0.6          | 4.6   | 2.1  | 44.1  |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9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2018년 말에 비해 0.3%p 감소함

〈그림 25〉 가계 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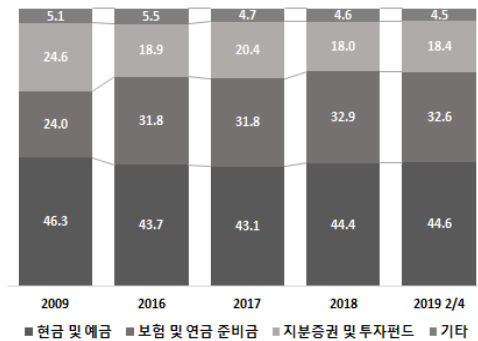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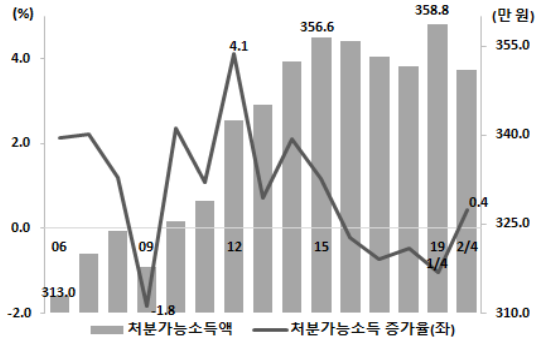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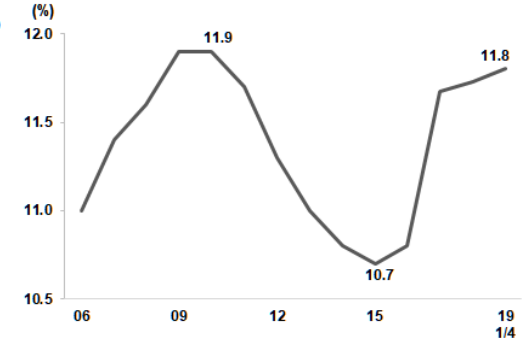
■ 2016년부터 감소하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2019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1/4분기까지 상승세임

〈그림 27〉 실질 처분가능소득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28〉 DSR



자료: BIS

## 4. 규제·제도

###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19. 9. 24 금융위원회)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함

### ■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제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2019. 8. 1 금융감독원)

- 보험민원,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 보험 판매채널 간 신뢰도 경쟁 유도를 위한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개시(2019. 7. 22 금융위원회)

-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개시하여 보험설계사와 GA의 경영사항 및 불완전판매율 등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함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19. 7. 18 금융위원회)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로, 보험계약 모집, 광고 규제 및 상품공시 등 보험 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

### ■ 치매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2019. 7. 2 금융감독원)

-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